

# 바람직한 수도권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남궁원 총무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I. 서론

### 1. 연구의 동기와 의의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표-1>에서 보면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7%에서 2020년에는 13.2%로 증가하며, 평균수명은 2020년에는 남자는 74.5세, 여자는 78세로 연장된다. 또한, 우리 나라 노인의 고령화지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표-2> 한국 노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노인 2,640,205명 중 65~74세에 해당하는 노인(연소노인)의 비율은 68.5%, 75~84세에 해당하는 노인(고령노인)의 비율은 26.5%, 85세 이상의 노인(초고령 노인)은 5.0%로, 75세 이상 고령노인이 전체 노인의 31.5%를 점하고 있다.

■ <표-69> 노인인구 추이 및 평균수명

(단위 : 천명)

연도별 구분	1960	1970	1980	1990	1998	2000	2020
전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60,429	47,275	52,358
65세 이상 노인인구(%)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3,051 (6.6)	3,371 (7.1)	6,889 (14.2)
평균수명	52.4	63.2	65.8	71.6	73.5	74.9	78.1

자료: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7.1)

■ <표-70> 한국의 노인 인구수

	전체노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실수(%)	2,640,205 (100.0%)	1,856,523 (68.5%)	701,864 (26.5%)	131,818 (5.0%)

자료: 통계청 통계조사국 인구조사과, 1997.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간을 두고 고령화문제에 대처해왔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앞으로 시급한 과제로 부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단도 아울러 고령화되어가고 있어 나름대로 교역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경제성장과 보건의료의 발달에 따른 인구 수명 연장으로 우리 교역자들도 정년 퇴임을 한 뒤, 노후에 계속되는 장기간의 수도원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좀 더 보람있고 유익한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며, 더 나아가서 원불교 수도인의 노후생활 정체성 확립에 일말의 기여를 하는데 그 기본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서론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와, 의의, 목적을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교단 수도원 생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본 뒤,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향을 원칙으로 삼고 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의 틀을 알아보고, 그 틀 속에 맞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앙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에서 그 실례를 찾아 소개를 하고자 한다. 이어, 결론에 가서는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각 수도원에 정착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밝히고 마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바람직한 수도원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왜 연구해야 하는가?

그 연구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를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첫째는 원불교 교서에 나타난 교리적인 측면과 둘째는 일반노인문제 해결에 따른 현실적인 측면이다.

### 1) 교리적인 측면

- ① 일생생활에 결함됨이 없는 원만한 삶을 위해다.(대종경 서품 18장, 정산종사 법훈편 3장)
- ②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다.(대종경 전망품 27장)
- ③ 사회의 아름다운 풍속을 진작시키기 위해다.(정산종사법어 세전)
- ④ 영원한 세상에 정신의 종자를 기르는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를 닦고 실천하기 위해다.(정산종사법어 휴양의 도)

### 2) 현실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는 사회변동에 따른 일반적인 노인문제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수도원 원로 교역자들은 일반적인 노

인문제를 더불어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변동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기는 노인문제는 三苦 또는 四苦로 말한다. 三苦는 빈곤, 질병, 고독이며 四苦는 三苦에 역학상실을 첨가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년퇴임으로 인한 역할상실,

원로 교역자들은 정년퇴임 함으로 인해 각 교당이나 기관에서 책임자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생 이루고 쌓아온 공부나 사업의 일선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 많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수도 한다. 또한, 역할을 상실함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경제권과 교도들을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는 교화권까지도 놓게 된다. 여기서 일반적인 노인문제가 아울러 비롯된다.

② 수입절감으로 인한 빈곤문제,

퇴직으로 인해 정기적이 수입원이 단절되고 경제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빈곤 상태에 빠진다.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원로들은 더욱 빈곤에 빠지기도 한다. 교단의 후생 용금으로 생활하기 벅찰 때는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존심 침해 등 심리적 고통까지 겪을 수도 있다.

③ 신체적 노화에 따른 건강약화,

노년기는 신체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건강이 약화되기 쉬운 시기이다.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와병율이 2~3배 이상이 되며 만성적 질환과 합병증적인 현상이 빈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은 노인질환의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④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에 따른 심리적 고독감,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은 노인과 사회와의 단절을 가져오고 고립시키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단적으로 교단적인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던 원로교무가 그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고 수도원 생활을 함에 따라 사회와 교단사와 직접적인 단절을 가져오며 교당과 교도들로 부터도 단절이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과 가치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어 심한 심리적 고독감에 빠질 수도 있다.

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긴 여가시간의 문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평균연령이 신장되었고 정년퇴임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일률적으로 직장을 놓게되어 더욱 길어진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는 우리 공부하는 수도인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노년기에 겪게 되는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수도원 프로그램 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 II. 수도원 생활의 현황과 문제점

### 1. 수도원 생활의 현황

일반적으로 수도원이라는 개념을 우리 교단의 원로 숙덕들이 정년퇴임하고 정양하는 기관이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 수도원은 여성퇴임자의 중앙수도원과 영산수도원, 남성퇴임자의 원로원이 있으며 남녀퇴임자가 같이 상주하는 동산수도원과 일반사회인, 교도님들과 함께 상주하고 있는 중앙수양원 등이 있다.

이러한 수도원에 현재 입원해 있는 수는 다음 <표-3>과 같다.

■ <표-71> 정년퇴임자 99년도 정양기관 입원현황 (제공:공익부)

구분	중앙수도원	원로원	동산수도원	영산수도원	중앙수양원	현장	기타	합
남	0	13	13		0	2	3	31
여	55	0	23	3	25	4	4	114
합	55	13	36	3	25	6	7	145

이들 각 정양기관에 생활하고 있는 하루생활의 일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05시~06시 : 공동좌선  
 06시~07시 30분 : 요가, 아침산책, 청소, 세면  
 07시 30분~09 : 아침식사  
 09시~12시 : 자유시간  
 12시~13시 : 점심식사  
 13시~17시 : 자유시간  
 17시~18시 : 저녁식사  
 19시~19시30분 : 염불 일기  
 19시30분~10시 : 자유시간  
 10시 : 취침

자유시간에 개인적으로 운동이나, 독서, 등산, 산책, 상담, 병원, 개인적인 볼 일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식으로 그룹을 지어 하는 동아리 활동은 없다. 따라서 수도인의 일과대로 하루를 보내는 데, 따로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단지 있다면, 고경 공부나 교전공부 등을 마련하여 시간을 갖거나 부정기적으로 공동작업이 이뤄질 뿐이다.

요즘, 중앙수도원은 석산 한정석교무의 주역강의를 받고 있으며, 동산수도원은 자체적으로 오전 9시에서 10까지 교전공부시간을 마련하여 휴휴암좌선문을 공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동산수도원에 계신 남자 원로님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산행도 하고 야유회도 갖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소속으로 되어있고 여성정년퇴임자가 25명이나 있는 중앙수양원은 주간 프로그램 계획표<표-4>를 작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표-72> 중앙 수양원의 주간 일정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05:00-07:00	명상의 시간, 선요가, 아침 산책, 세면						
	09:00-12:00	건강 및 생활상담, 물리치료, 병원진료						법회
오후	16:00-17:30	이야기 나누기	영화 감상	노래 배우기	놀이 프로그램	그리기 만들기	자원봉사자와 함께 방청소, 세탁	
	18:00	하루일과 정리						

## 2. 수도원 생활의 문제점

### 1) 수용공간의 부족

원기 85년에서 94년까지 향후 10년간 정년퇴임자 예상 인원이 무려 184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부득이 파생되는 문제가 수용공간이다.

금년 수도원 영산 분원의 개축으로 원기 85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86년에 13명, 87년에 13명, 88년에 17명, 91년에는 30명이 퇴임하는 등 배로 급증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이 현재대로 지속될 경우, 원기 86년부터는 수도원이 아마 1년에 하나씩 신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 2) 후생요금 부족문제로부터 오는 상대적 박탈감

현재 후생용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제일 많이 받은 후생용금이 19만 8천원 인이다.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달간을 살 수 있는가? 더구나 병이 날 경우는 미리 예측해 놓은 돈이 없으면 어렵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익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기 86년부터 총부 요금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경우 교역자 개개인이 내는 후생회비를 원기 85년부터 3년마다 30%를 인상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전무출신 후생용금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원로님 가운데 보이지 않은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날 수도 있다.

### 3) 다양한 프로그램 결여와 원로님들의 욕구 부족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연령 폭이 넓어지고 수도원에 거주하는 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수도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각자 개인이 알아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시간을 보내는 실정이다. 동산수도원에서는 다도나 꽃꽂이를 개설해 운영해보았으나 운영이 잘 안되어 중도에 그만 둔 상태다.

### 4) 다각적인 복지시설과 문화 시스템 구축 결여

지금까지 건축한 수도원을 보면 거의가 숙소와 강당뿐이다. 다른 편의시설과 의료공간, 문화공간이 배려가 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수도원을 지으려면 숙소로만의 기능이 아닌 의료공간과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곳으로 노인시설로서 복합적인 공간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설계와 건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하여 의료혜택(건강교실, 무료진료, 의무실, 물리치료실, 간병인)과 각종 문화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수도원을 만들어가야 한다.

## III.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방향

앞의 「수도원생활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도 밝혔듯이 수도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 수도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모색 방향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에 맞아야 한다.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서품 18장에서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 대사를 연마하면서 춘추로는 세간 교당을 순회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동하에는 다시 수양 생활을 주로 하여서, 이와 같이 일생 생활에

결합된 점이 없게 하자는 것이며”라고 하셨으며, 정산종사는 『세전』 총서편에서 “노 년기에 당하여는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가 있어야 하며, 열반기에 당하여는 열반의 도와 천도의 도가 있어야 하나니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를 세전에 자세히 밝혀주셨다.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는 다음과 같다.

### 1) 휴양의 도

사람이 휴양기에 당하여는 생사에 대한 일과 정신 통일이 오직 가장 크고 긴요한 일임을 철저히 알아서 일상 생활을 오직 수양에 집중할 것이니,

휴양의 도는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기어이 보려하지 말 것이요,  
둘째는 귀에 들리지 않는 일을 기어이 들으려 하지 말 것이요,  
셋째는 설사 보이고 들리는 일이라도 나에게 관계없는 일을 기어이 간섭하지 말 것이요,  
넷째는 의식 용도를 자녀나 책임자에게 맡긴 후에는 대우의 후박을 두지 말 것이요,  
다섯째는 젊은 시절에 지내던 일을 생각하여 스스로 한탄하는 생각을 두지 말 것이요,  
여섯째는 재산이나 자녀나 그 밖의 관계 있는 일에 착심을 두지 말 것이요,  
일곱째는 과거나 현재에 원망스럽고 섭섭한 생각이 있으면 다 없앨 것이요,  
여덟째는 자기의 과거에 대한 시비에 끌리지 말 것이요,  
아홉째는 염불과 좌선 공부를 더욱 부지런히 할 것이요,  
열째는 무시선 공부에 노력을 계속할 것이니라.

### 2) 해탈의 도

세상 일은 한량이 없고 착심도 한계가 없는지라, 인간의 모든 일을 착심으로써 하기로 하면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괴로움과 걸림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일에 해탈을 얻기로 하면 먼저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하여야 할 것이요, 다음은 그 진리를 모든 경계에 잘 응용하여야 할 것이니,

해탈의 도는

첫째,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 불멸의 근본 진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생사의 경계에 실지로 응용하여 죽고 나는 데에 해탈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고락이 원래 돈공한 자성의 원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고락의 경계에 실지로 응용하여 괴롭고 즐거운 데에 해탈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차별과 이해에 해탈을 얻는 것이니, 반야심경에 『오온이 다 공함을 비쳐 보아 일체의 고액을 건넌다』하신 것이 곧 해탈 공부의 강령이 되나니라.

## 2. 대산 상사님의 「수도인의 일과」 법문에 근거해야 한다.

대산상사님께서 『정전대의』에서 「새생활 일과」를 법문으로 내주셨다.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의 프로그램은 이 「새 생활 일과」 법문에 바탕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수도인의 일과인 「새생활 일과」는 다음과 같다.

### ☞ 새 생활 일과

하루 생활을 통하여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의 자립력을 세워 나가자.

#### 1) 아침은 수양정진 시간이다.

①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선공부로 나날이 새 정신을 기를 일

② 도량을 맑히는 조기청소로 나날이 새 환경을 가꿀 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이 마음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하루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비할 일.

#### 2) 낮에는 보은노력 시간이다.

① 부지런히 활동하고 감사 보은하여 나날이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개척할 일

② 각자가 생산적인 활동과 근검 저축으로 나날이 여유있는 생활을 개척할 일

낭비는 빈곤을 낳고 생산은 부강을 낳으며 보은은 복덕의 문이 열리고 배은은 재앙의 문이 열린다.

#### 3) 저녁은 참회반성 시간이다.

① 하루의 죄복을 점검하여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은 날로 더욱 힘쓰기로 서원할 일

② 하루의 수지를 대조하여 빚지지 않고 넉넉한 자립생활을 날로 더욱 개척하기로 서원할 일

하루 일과를 마치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일을 반성 충고하고 깨끗이 청산한 후 잠자리에 들 것.

## 3.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공동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함께 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가능한, 고독감을 최소화시키고 공동 유대와 결속력을 심어주는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4. 정보화시대에 맞아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사는 원로 수도인인 만큼 폭발적인 지식과 기술의 변화에 대한 흐름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며 사회발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는



동시에 세대간 지역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는 프로그램들을 수용하며,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정보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정보화시대에 문외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유익하고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수도권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백해무익해서는 안되며 소모적이어서는 안된다. 현대는 실용의 시대이니 만큼,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이 수도권 생활에 유익하고 기쁨을 주며 정신이나 육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오늘날, 직업사회가 변화하고 있어 일반사회에서는 노인들에게 알맞는 직업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새로운 직업에 대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려는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수도원의 원로 교무님들이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위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지는 않더라도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이 좀더 바람직한 수도권 생활 하는데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유익하고 생산적이어야 한다.

#### 6. 건강과 치매예방에 입각해야 한다.

건강유지는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필수요건이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노후 소득보장이 잘 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노인의 빈곤문제보다는 건강문제나 여가활동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노인인구의 평균수명은 증가하였지만,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질병이 없으면서 활동이 자유로운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13.3%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수도원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바람직한 수도권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건강유지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야 하고, 아울러 치매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 IV. 바람직한 수도권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례

바람직한 수도권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과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루 일과 중 아침 수행정진하는 시간과 밤의 참회반성하는 시간은 다음의 신앙수행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겠고 낮의 보은 봉공하는 시간은 오전 자유시간에 건강 및 생활상담, 물리치료, 의무실 이용, 병원 진료,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보내고 오후 시간은 다음의 취미활동, 건강관리활동, 생산활동프로그램을 적절히 배합하여 활용하면 좀더 보람있고 유익하며, 알찬 노후를 보내리라 생각이 든다.

이를 다시 주간 일정표로 정리해 한 예로 살펴보면 <표-5>와 같다.

■ <표-73>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의 주간 일정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전	05:00-07:00	심고, 좌선(행선이나 산책)이나 기도, 선요가(체조), 세면						
	09:00-12:00	건강 및 생활상담, 물리치료, 병원진료, 건강관리 프로그램						법회
오후	14:00-17:30	취미활동이나 생산활동 프로그램					자유활동	
	19:30-21:00	개인이나 집단의 신앙수행 프로그램					자유시간	
	21:00-22:00	염불, 일기, 심고						

이 외에 월별로 성지순례, 문화학습기행, 명사초청강연회, 인화운동회, 원로숙덕의 밤(축제), 작품전시회, 각종 무료진료 등을 적절히 섞어서 실시하면 더욱 좋다.

위 <표-5>에서 관련된 신앙수행 프로그램, 취미활동 프로그램, 건강관리활동 프로그램, 생산활동 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신앙수행 프로그램

기도, 좌선, 염불, 경전읽기, 경전쓰기, 경전이나 법어명상 테이프 듣기, 추모담, 교화체험담, 법회, 회화, 성지순례, 지방교당 순방하기, 명사초청강연회, 각종 소그룹 활동(고경, 경전연마, 심성계발프로그램)

### 2. 취미활동 프로그램

독서, 노래교실, 영화감상, 등산, 원예, 서예, 관광, 종이접기, 컴퓨터교실, 그림 그리기, 자서전쓰기, 민요와 장고 배우기, 바둑, 장기, 문화학습기행,

### 3. 건강관리활동 프로그램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교실·건강상담·건강검진 운영, 질병이 있는 원로님을 대상으로 치료·간호·재활 서비스 제공, 의무실 운영, 무료진료실시(한방, 내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선체조, 요가, 생활체조, 단전호흡, 수지침, 게이트볼, 베드민턴

#### 4. 생산활동 프로그램

매듭, 지점토, 각종공예, 전작활동, 작품활동, 교당 교화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설교나 천도재, 빈교당 지키기)

### V. 결론

지금까지 수도원 생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방향을 나름대로 설정하여 그 틀 아래 하나의 실례를 제시해보았다.

이 하나의 실례가 임상실험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천을 통해 바람직한 수도원 생활의 프로그램으로 미약하나마 정착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며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1.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수도원이 되려면 좀 더 집단화,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수도원은 기본적인 신앙과 수행 프로그램이 행해진 공동숙소 기능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수도원이 생동감이 없고 활력이 없다.

수도원은 꼭 휴양과 해탈의 도만 닦는 곳은 아니다. 사회의 아름다운 풍속을 진작시키고 바람직한 노인문화를 형성하여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기능을 함께 아울러 수행해야 한다. 이제 수도원은 신앙수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취미활동과 건강관리활동, 생산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뤄지는 노인복지가 다양하게 실현되고 노인문화를 꽃피워 노인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향도하는 복지문화의 샘터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수도원이 지금의 소규모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집단화되고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종합적이고 바람직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2. 원로님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기 전에 먼저 원로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해야 한다.

어느 노인 교육기관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노인들이 가장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이 '노인건강과 영양', '치매방지법', '노후대책방법'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래서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했더니, 그야말로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 3. 원로님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자세와 다양한 문화욕구가 필요하다.

원로님들이 그저 생사대사에 대한 해탈의 도만 닦지 말고 내생을 위해 준비하는 자세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문화욕구를 표출해서 말년을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하게 보람있게 보낼 필요가 있다. 어떤 할머니가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말년에 무슨 영어공부입니까?’ 했더니, ‘지금 열심히 해두어야 돌아와서 쉽게 영어를 하지.’ 라고 했다.

노년에 생사 해탈하기 위해 수양에 전념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 시간을 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를 창조하는 일도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보내는 한 방법이다.

### 4. 수도권 직원들이 시설운영과 관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설운영에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직원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어른님들의 갖은 수발을 하느라 고생이 참으로 많았다. 이제 직원중의 한사람은 그 사회에 헌신봉사 하겠다는 사회복지사를 두어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자원봉사자도 모집, 교육, 관리토록 전담하는 교무를 두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도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5. 교단에서는 여력이 된다면 수도원을 국가의 사회복지 노인수용시설 시스템과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도원은 임원으로 원장과 부원장, 사무처장, 총무 약간인, 기타 직원을 두고 있다. 위급한 상황시 가장 필요로 하는 간호사도 없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사회복지사도 없다. 국가의 노인수용시설은 원장, 총무,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생활보조원, 간호사, 취사, 세탁으로 담당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수도원이 앞으로 복지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이 되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국가의 사회복지 노인 수용시설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교무와 간호사를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 6. 교단적으로 지속적인 수도권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단적인 관심과 적지않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사회복지개론』,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편, 유봉출판사
2. 『원불교사상시론 II집』, 서원주, 「원불교노인관」, 원불교출판사
3.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1999 여름호, 도서출판 평화당
4.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1999 가을호, 도서출판 평화당
5. 『자원봉사프로그램 백과』 ⑧, 보건·의료/환경/교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 『자원봉사프로그램 백과』 ④, 노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7. 『원광』 통권 172호, 심도정,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7. 『원광』 통권 194호, 「노인문제와 원불교 교화」
8. 『정화 2집 연잎에 비내리니』, 전종철, 「우리들의 아늑한 쉼터 수도원」, 원불교여자정화단
9. 「후생사업회 전망 및 대책」, 공익부
10. 「수도원 문제 개선방안」, 이선조, 수위단사무처